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2월 9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동수 19대 국회만들기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대 총선 앞두고 토론회 개최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2월 9일(목)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2012년 2월 15일(수)에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남녀동수 19대 국회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녀동수 19대 국회만들기 토론회 개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2년 2월 15일(수) 10:30-13:30○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신문사 |
|---|

※ 우리나라의 18대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011년 11월 현재 15.1%(승계 포함 45명/전체 299명)이며, 이는 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의 평균 19.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2012년 2월 15일(수)에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남녀동수 19대 국회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여성정치세력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통하여 남녀동수 19대 국회 만들기를 구현하고자 마련되었다.

- 본 행사에서는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가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천 어떻게 하나?”를,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남녀 동수 19대 국회만들기를 위한 여성정치세력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주제발표 후에는 이승진 한나라당 여성국장, 정춘생 민주통합당 여성국장, 장경화 자유선진당 여성국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황유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MIN 대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여론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붙임. 1 행사개요

붙임. 1 행사개요

- 일시: 2012년 2월 15일 10:30-13:30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신문사
- 프로그램

- 10:30-11:00 등록
- 11:00-11:10 인사말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11:10-12:30 발제 및 지정토론
사회: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 원장)
발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공천 어떻게 하나?**
김형준(명지대학교 교수)
남녀 동수 19대 국회만들기를 위한 여성정치세력화 방안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토론: 이승진(한나라당 여성국장)
정춘생(민주통합당 여성국장)
장경화(자유선진당 여성국장)
김애화(통합진보당 여성담당연구원)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황유정(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
박성민(정치컨설팅그룹 MIN 대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2:30-13:30 중식 및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